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원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전도위원회에서 5주간에 걸쳐 주부교양강좌 실시

자녀 교육 · 영양 · 가정 문제 등 각 분야 권위자를 강사로 초빙
첫째 시간 4월 16일(화) 충현복지관 지하 1층에서

전 도위원회(위원장 강은원 장로) 여전도회연합회에서는 오는 4월 16일(화)을 시작으로 매주 1회씩 5주간에 걸쳐 '주부교양강좌'를 실시한다.

전도위원회에서는 작년까지 계속되어온 예수사랑 큰잔치를 금년부터 실시하지 않게 됨에 따라 각 교구별, 각 전도회별 전도운동을 계획하게 되었고 이미 연초에 각 전도회 임원을 대상으로 팀 전도훈련을 실시하면서 계획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도위원회에서는 전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전도회연합회 주최로 '주부교양강좌'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도 대상자들을 직접 교회에 데리고 나오기가 어려움에 따라 가정 주부들에게 필요한 강좌를 개최하여 부담없이 교회로 인도하여 강좌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교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장소도 교회당이 아닌 충현복지관으로 정하게 되었고, 교양강좌의 내용도 일반적으로 주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자녀교육, 건강과 영양, 주부 우울증, 가정 생활의 문제 등으로 선정했으며, 강사도 그 분야의 최고의 강사를 섭외하여 결정했다.

전도위원회에서는 이 일을 위해 매주 일 오후에 모여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여 왔다.

성도들은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자연스런 전도의 기회를 삼아서 불신자들을 교회와 접촉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전도회에게는 이런 때에 적극 참여하며 전도와 봉사의 기회로 삼는다면 좋을 것이다.

찬양 테이프 제작기로

전 찬양대와 남성중창단

찬양위원회(위원장 손동은 장로)는 교회 찬양대 및 남성 중창단의 찬양곡을 녹음하여 테이프를 제작기로 하였다.

이는 성도들이 그동안 예배 시간의 찬양곡을 요구하는 일이 많아지고 또한 건전한 찬송 및 성가에 대한 바른 이해 및 보급을 위해 필요한 일로 여겨져 지난 4월 정기당회의 승인을 받아 제작하게 된다.

각종 찬송가와 성가를 단계적으로 녹음하되 장래예식용 찬송가를 우선 제작하여 상을 당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첫번째 테이프는 6월 중 편집, 출간할 예정이다.

교회학교 고등부도

한편 교회학교 고등부에서도 고등부 주일예배 시간의 찬양곡을 테이프 제작하여 학생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또한 전도용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선교위원회에서

제5회 96년 하계 단기선교훈련생 모집

선교위원회(위원장 노광현 장로)에서는 '96 하계 단기 선교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다. 선교위원회에서는 해마다 여름 방학 및 휴가철을 이용하여 선교 현장으로 단기 선교 훈련을 다녀와 선교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선교적 헌신을 다짐하는 기회로 삼아왔다.

올해도 여름철을 맞이하며 단기 선교 훈련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 관심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 아 래 -

- 모집기간: 1996년 4월 14일 - 21일
- 모집인원: 00명
- 선 교 자: 인도네시아, 태국
- 응모자격: 선교에 사명있는 세례교인으로서 본 교회 등록한 지 1년이 넘은 성도
- 교부 및 접수: 선교위원회(☎ 552-8200 교환 357, 358)

일 시	제 목	강 사
4월 16일(화) 오전 10시	자녀에게 무엇을 길러 줄 것인가	이 성 호 박사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4월 25일(목) 오전 10시	영양과 건강	이 양 자 박사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5월 2일(목) 오전 10시	고부간의 갈등	차 준 구 박사 송탄신경정신과 원장
5월 7일(화) 오전 10시	건강한 성과 가정의 문제	이 동 원 목사 지주교회 담임
5월 14일(화) 오전 10시30분	주부 우울증	송 수 식 박사 적십자병원장

24시간 연속기도회

4월 11일(목) 정오부터 4월 16일(화) 정오까지 제11교구,
4월 16일(화) 정오부터 4월 19일(금) 정오까지 제12교구,
4월 19일(금) 정오부터 4월 21일(주일) 정오까지 제13교구



군목후보생수련회 지난 4월 9일(화) 제12회 군목 후보생 수련회가 우리 교회 국제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 까지 개최되었다. 군목후보생수련회가 주최하고 우리교회가 후원하는 군목 후보생 수련회는 매년 우리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수련회에서는 군목 후보생들 40여명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군종 업무의 이해, 군의 특성 이해, 군 선교의 비전과 후원 등 군종 업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의 강의가 있었다.

개회예배는 현상민 목사(제7교구 지도자)를 설교로, 군전도회 성가단이 특송을 담당했고, 전도위원회에서는 참석자들에게 점심과 저녁식사를 제공하기도 했다.

●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첫째날 (4월 1일) 저녁집회 ●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요 13:36~14:6)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 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

지난 고난주간 동안 교회는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를 열어 기간 중 매일 새벽, 낮, 저녁 본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부흥집회를 가졌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과 말씀, 순종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오신 감사 목사님의 자기 체험과 간증이 담긴 메시지는 온 교인들에게 큰 감명과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제 부흥사경회를 마치면서 그때의 감동을 다시 한번 새겨보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조용히 생각해 보고, 또한 그때 참석하지 못한 다른 교우들과도 이 은혜를 함께 하고 싶어 <주간 중헌>에서는 부흥사경회 메시지를 가감없이 그대로 풀어 전하기로 하였다. 연재 순서는 부흥사경회 일정을 따라서 하게 된다.(편집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신 목사님께 부흥회를 한 번 해달라는 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하기를 “지방에 있는 촌사람으로서 감당키 어려우니 판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후에 충현교회 장로님이신 모양인데 장로님 한 분이 집회를 청하시기에 제가 교회가 너무 커서 좀 감당하기 어렵다고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부흥회를 청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산에서 집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길래 ‘아, 그러면 좋겠다. 마침 기도할 제목도 있는데 집회도 인도하지만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겠다. 또 산에서 집회를 하니 그렇게 많이 모이지도 않겠지.’ 싶어서 제가 마음을 놓고 “예,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된 게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교회에서 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싶어서 제가 또 안올려고 생각을 했지마는 ‘아마 두 번이나 이렇게 거절되는 것을 보니 무슨 섭리가 있는가보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는 뭐 그런 떠들썩한 부흥장사도 아니고 그저 지방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집회 한 번 해주세요.’ 이러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집회를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몇 말씀 드릴테니 다같이 받아 합시다.

(다같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도 아니고, 수양을 많이 해가지고 얻어진 확신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 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한 번 다같이 받아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러나 그냥 안 줄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뭔가 하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한 번 더 받아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말씀을 듣다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소개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흘려 돌아가신 귀중한 진리를 소개를 받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그러한 진리를 들을 때 믿음에 생장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듣는다고 다 믿음에 생기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에 믿음이라는 씨앗을 그 속에다가 함께 하는 그 들음에 복이 있을지여다! 한 번 더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할렐루야, 한 번 더 받아합시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는 가증하다” 잠언서 28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산기도, 들기도,



김덕신 목사
(대구 동부교회 담임)

— 연재 순서 —

- 첫째날 (4월1일)
 - 저녁 집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요13:36~14:6)
- 둘째날 (4월2일)
 - 새벽기도회 신령한 생수(출 17:1-7)
 - 낮 공부 은혜와 은사(고전 12:4-11)
 - 저녁 집회 다윗의 신앙간증(시 23:1-6)
- 셋째날 (4월3일)
 - 새벽기도회 구름기둥 불기둥(출 13:20-22)
 - 낮 공부 믿음의 성전과 봉사의 성전(창 28:10-22)
 - 저녁 집회 정조를 구하라(사 7:10-17)
- 넷째날 (4월4일)
 - 새벽기도회 믿음과 생활(약 5:13-20)
 - 낮 공부 축복과 복(창 48:1-7)
 - 저녁 집회 말세의 하늘의 세 가지 음성(계 17:15-18:5)
- 다섯째날 (4월5일)
 - 새벽기도회 내 사랑이(아 6:4-9)

철야기도 열심히 하는 것 고마우나 말씀없는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떨어지고, 또 성령을 받지 못하고 악령을 받는 예가 많습니다. 결론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한 번 더 받아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는 가증하다” 그렇게 아시고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받아합시다. “너희는 내게 나올 때에 빈 손으로 나오지 말라” 성회를 열었는데 여러분, 이 성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 손으로 오는 것 아닙니다. 어린 죄오려 가는데 선물없이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빈 손으로 나오면 안되지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 말씀이 “너희는 내게 나올 때에 빈 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받아주세요. “나도 너희를 빈 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한 번 더 받아합시다. “너희는 내게 나올 때에 빈 손으로 나오지 말라 나도 너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예, 한 번 더 받아합시다. “너희는 내게 나올 때에 빈 손으로 나오지 말라 나도 너희를 빈 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믿습니다.

성구 하나만 더 소개하고 다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탄음시다. 다같이 받아 합시다.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성령으로 한 새사람을 이루

어 하나님께 나아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그대로 암송하지는 못했지만 혼자 나오지 마세요. 한 분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먼 데 있는 사람이 누구래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래요? 여러분이지요.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느니라” 그렇게 하세요. 한 번 더 같이 합시다.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두 사람을 한 새사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니라.” 오늘 저녁에 혼자 오신 분들은 내일 저녁에 꼭 한 분을 모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2-3분 기도하십시오. 이번 성회에 성령의 불이 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이 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2-3분 동안 기도하십시오.

221장 1절만 부릅니다.

나 가나안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같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죄송합니다. 3절 한 절을 더 부릅니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써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같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한번 받아합시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한 번 더 받아합시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씀을 통해서 첫날 오늘 저녁에 우리가 듣는 말씀의 제목을 삼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유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언이라는 말은 일단 얘기를 하면 그 이상은 의의가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첫째날 (4월 1일) 저녁집회 ●

하신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언이라고 하긴 좀 어렵다, 유언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죄송스러운 것 같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친구약 66권에서 가르친 성경의 모든 진리를 이 세 장에다가 압축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말씀하시기 전인 13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끝'이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 이런 말씀도 있지요?

이쨌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의 예수님의 마음을 요한이 성령으로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 열두 제자 중에 하나가 빠지고 열한 제자들이 성령충만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에 믿는 모든, 모든 택한 백성들을 당신의 사람, 자기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자기의 사람을 사랑할 때에 너무나 사랑하시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워, 예수님의 심정이 뜨거워 별책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차례에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을 씻습니까? 사제지간에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야 될데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다니요. 절대로 내 발은 씻기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시는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었지만 집도 가지고 있고, 통장에 그래도 그럴만한 저금도 있고, 여러 가지 가진 것도 있는데 베드로는 불고가사(不顧家事), 불고처사(不顧妻子), 불고생명(不顧生命) 다 드렸어요. 주님 앞에 다 드리고 따라갔으니 불교나 이교 같은 데서는 그만큼 공을 많이 세웠으면 극락에 가도 제일 좋은 자리에 갈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공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공을 많이 세우고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씻지 아니하면 안되는,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는 주님의 너무 충격적인 말씀에 베드로는 놀라서 "아이고 그러시다면 머리도 씻어 주시고, 손도 씻어 주시고, 발도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다같이 받아 합시다. "은 물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어도 깨끗하다" 예수님은 온 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어도 깨끗하다 하시고 베드로가 발을 쭉 내밀 때에 그 다리를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 앉으시면서 "너희

가 깨끗하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지 않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잡아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배신하는 사람이 생기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얘깁니다. 화기에애한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모두들 "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두 자기를 가리키며 "내가 주님을 거역할 사람입니까?" "내가 팔 사람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묻는 말에 일언 반구도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앉아 계시며 음식만 잡수셨는 것 같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도 아니고, 수양을 많이 해가지고 얻어진 확신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한 번 다같이 받아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러나 그냥 안 줍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 하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듣다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소개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흘려 돌아가신 귀중한 진리를 소개를 받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그러한 진리를 들을 때 믿음이 생산되는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궁금증이 나고 또 답답해서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하고 있는 요한을 보고 컷속말로 누가 주님을 잡아줄 사람인지 한 번 물어보라고 합니다. 주님에게 요한이 컷속말로 "주여, 누가 당신을 잡아줄 사람입니까?" 하고 묻자 요한에게 들릴락말락 하는 적은 음성으로 "내가 먹을 하나 떼어서 이제 건네주면 그것을 받는 그가 나를 잡아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는 성찬식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마치는 공판복음에 의하면 "먹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는 몸이요" 그렇게 축사하시고 먹을 떼시어 주셨지요. "이는 내 몸이요.....", 가룟 유다가 받았습니다. 준비하지 아니하고 성찬예식에 참여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먹을 받는 시간, 성령이 강림한 것이 아니고 때때로 그 마음에 들어가지더라. 너무나 놀라운 얘깁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충격을 받고, 일 년에 두 번씩 성체주일을 지키며 성찬예식을 행할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리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고 뺨으로 나가는 뒷모습이 허두중에 사라져 갈 때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고 너희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지 못할 테지요. 조금 있다가 너희가 나를 보겠

도다" 예수님이 무슨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으로 너희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지 못할 테지요 조금 있다가 나를 보겠다고 하시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한 번 더 받아합시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쉬운 말로 말하면 죽음으로, 죽으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더 깊은 의미를 갖는 울음섞인 뜻으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에서 얻어진 은혜에 너무 감격합니다. 너무

복을 등등등등 치면서 사람의 생명을 재촉하는구나

목이 떨어지기 전에 서쪽하늘을 보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구나

황천에는 집 한 칸도 없다던데, 죽어서 황천에 가면 집 한 칸도 없다고 하던데 오늘 누구 집에 하룻밤을 머물지

'황천에는 집 한 칸도 없다고 하던데 누구 집에 머물지' 하는 순간에 목이 날아갔습니다. 저는 그 시를 읽어도 다 인생의 가는 길을 모르고 죽는 그의 마지막이 너무나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 충신, 그 학자도 가는 길을 몰랐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와 같은 비정한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을 시간이 다가오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제자들이 물을 때에 예수님이 그때 성삼분 모양으로 '내가 가는 길 잘 몰라. 내가 더 기도 많이 하고 연구하고 깨닫거든 깨닫기는 지금 죽는 순간이 곧 다가오는데 어쨌건 그렇더라도 깨닫거든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다면 기독교는 벌써 없어졌을 겁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사람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성삼분같이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같이 받아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너무나 똑똑하게 죽을 저 건너 편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한 번 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는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대부분은 우리 한국이 성경번역에 좀 서원잖아요. 번역이 좀 정확하지 못해요. 그런 좋은 말이 없어 그렇겠지만 영어성경을 읽어보면 훨씬 선명합니다. 제가 영어를 그대로 한 번 옮겨보겠습니다.

"There are many mansions in my Father's house."

우리 아버지의 맨션(mansion). 요새 조금 큰 집을 지으니까 뭐라 합니까? 맨션이라 하지요? 그러나 영어를 조금 공부한 사람은 큰 집이라고 해서 맨션이라 하지 않습니다. 맨션은 일국에 하나 뿐입니다. 대통령 관저를 말합니다.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들어가시는 그 집이 맨션입니다. 조금 크다고 아무 집이나 맨션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 제일 들어가고 싶은 집들이 있습니다. 궁전. 옛날 임금에 기거하시는 그 궁전입니다. 그런 궁전 같은 집이 너무나 많도다! 헬렐루야! 받아합시다.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우리 한 번 땀만 흘려 배워봅시다. "There are many mansions in my Father's house." 서울사람 똑똑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기를 하나 하면 좋습니다.

우리나라 이조 오백년 역사에 가장 비극적인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수양대군이 당신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임금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당신은 임금의 자리에 앉고, 그 단종을 제 영월로 보내 가지고 목을 졸라서 죽였는데 그 단종을 복위하려고 하다가 충신 80여명이 저 노랑진, 옛날에는 노들강변 그 언덕에서 전부 무참히 참수 당한 얘기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전부 다 목을 졸라서 죽였어요.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죄인을 죽일 때에 그냥 죽이는 것에 아니고 목을 등등등등 치면서 행기가 장단에 맞추어서 춤을 추면서 관이 목에 가 끼어 왔다가 떨어졌다가 하면서 그 사람의 일을 때어서 순간적으로 참수를 합니다. 80여명의 충신이 그레 죽었어요.

죽기 전에 성삼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한글을 창안하고한 유교의 대학자지요. 그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잠깐 기다리시라고, 지필묵을 하나 내게 좀 갖다 주시라고, 시 한 수를 남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간단한 시이지마는 유명한 원생 시입니다.

●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첫째날(4월 1일) 저녁집회 ●

데요.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닌데. 어쨌든 우리 아버지 집에 댄션이 많다고 했습니다. 댄션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공인된 거짓말이 세 개 있다 하는데 사람이 나이 많으면 죽고 싶다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죽고 싶은 때가 많아요. 그러나 자살 못하지. 자살 하면 거기 못가지. 우리 인생에게 너무나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답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것은 철학이 아니에요. 그것은 각도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공부들 많이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쪽에서 살다가 오신 그분만이, 그분만이 말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세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댄션이 많다. 너무나 많다. 천당이 비좁을까 싶어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There are many mansions in my Father's house."

도마라는 사람은 무슨 말씀을 하면 그것을 100% 믿지 아니하고 늘 의심을 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있을 곳을 예비하고 오신다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먼저 간다면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불교입니까, 유교입니까? 아니면 착하게 사는 데 있습니까?" 예수님이 단호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받아 하세요. "내가 길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두 개 하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 한 사람이 그 색시만 믿는 가정으로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장가와서 전도를 했는데 장모님도 믿도록 하고, 그 처남들도 다 믿도록 했는데 죽어라고 안 믿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군고 하면 장인이라 장인. "장인어른 예수 믿어요. 믿고 천당 갑시다." 이러면 "누가 가봤나?" "가보고 가며는 늦습니다. 일찍이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암만해도 안 믿어요. 그렇게 안 믿었는데 세상을 떠날 만한 무슨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이렇게 해가 가면 어떻게 하나?" "그럼 우에 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야지. 예수님 영접 안하고 이래가 가면 어떻게 한단 말이고" 그러니까 이 남편 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시끄러운 소리 엔간히 한다. 누가 가봤어? 천당 지옥 있는 거 누가 봤나?" "여보, 그러지 말아요. 고집 세우지 말아요. 예수님을 불러요." "빈대도 낮짝이 있지. 지금까지 안 부르던 예수를 우에 부르노? 나는 모한다." 그래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래 죽어서 영 죽어버렸으면 이런 말도 안 나오지 않는 또 살아났어요. 이 부인이 너무나 너무나 많이 울고 불고 하면서 "그래가 됩니까? 아버지

여,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봤는데 그 기도 다 어디로 날아갔단 말입니까? 아버지여, 좀 살려주세요." 제발 예수님 영접하고 가게 해 달라고 얼마나 얼마나 울었더니 하나님도 귀가 따가우셨는지 한 10분만에 살아났어요, 살아났어. "아이고 기도의 응답대로 살아났군요. 여보, 여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런데 그 말은 들은 체도 안하고 "보소. 길이 두나 있다." 하더라고요. 눈은 안 뜨고 "길이 두나 있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되노? 하나는 분명 천당으로 가는 모양이고 하나는 지옥가는 모양인데 날 좀 바로 가도록 길 좀 인도해라고." "야 이거 땅파는 소리데이. 지 혼자만 보고 있는데 우에할꼬. 그 똑똑히 좀 보소. 보면은 틀림없이 천당가는 길

에 식구들이 입을 암만 닫으려고 해도 입이 안 다물어져서 그만 벌려진 채로 입에다 숨을 집어넣었다 하는 기라.

"내가 길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속에 깊이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얘기 하나 더하면 싶습니다.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어려운 얘기하면 뭐 알아듣습니까? 그냥 보통으로 하지요 뭐.

우리교회에 좀 이상한 이름을 가진 김덕곤이란 사람이 있는데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바빠 와주세요. 바빠 와주세요." "그래? 그러지." 그래서 가보니까 방안 윗쪽에 노인이 하나

내게 이르나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말씀이 제게 떠올라서 "집사님, 제가 지금 성구 하나 외우겠는데 경청 하세요. '진실로' 예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나니 내 말을 듣고' 여기 '내'라는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듣는 중에 의심나는 것 있습니까?" "없어요. 다아- 믿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나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보내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 받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받아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들려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아멘." 합니다. "보소. 영생 얻었네! 영생 얻었네! 당신 가슴 속에 파묻어두고 떼 떼 가서 찾으면 어찌노? 확신을 가지세요." 그제서 그 사람이 '아멘' 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기뻐하고 정말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기쁨으로 편안히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받아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나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겼느니라" 요한 복음 5장 2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지면 영생을 얻은 줄 믿으세요. 감사하세요. 영광 돌리세요.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가 '나 가나안 복지' 부릅니다.
나 가나안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써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베드로의 차례에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을 씻습니까? 사제직간에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다니요. 절대로 내 발을 씻기시지 못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시는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공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공을 많이 세우고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씻지 아니하면 안되는,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는 주님의 너무 충격적인 말씀에 베드로는 놀라서 "아이고 그러시다면 머리로 씻어 주시고, 손도 씻어 주시고, 발도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다같이 받아 합시다. "온 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어도 깨끗하도다" 예수님은 온 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어도 깨끗하다 하시고 베드로가 발을 쭉 내밀 때에 그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하고 지옥가는 길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오응, 똑같다 똑같아."

이거 큰일났는 기래요. 그래서 그 부인이 남편하고 얘기하면서 눈뜨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기라. "내가 길어요, 내가 길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면서 예수님 부르라고 해야 되겠다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여'를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여보, 여보. 왜 그래요. 예수님을 불러요." "뭐라고 부를꼬?" "주여- 불러요." "아이고 이 사람아, 빈대도 낮짝이 있지. 생전 안부르다가 지금 우에 부르라 하나." "늦어요. 늦어요. 빨리, 빨리 불러요. 빨리 불러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길이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가이드가 되시는 분인데 빨리 불러요." 하니까 숨이 떨어지기 전에, 겨우 받는 구원, 불 가운데 끄집어낸 구원인지 모르지만, 큰-소리로 "주여—" 하는 순간에 이래가지고는 입을 닫지도 못하고 그래 죽었어요. 나중

누워있는데 자기 아버지라. 방에 들어가 기도를 하고 가만 그 노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곧 가실 것 같은데 그 모습이 불안한지라.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불안하신 모양이지요?" 하고 물으니 "내 곧 가야 되는데 확신이 없어요. 내가 곧 가야되는데 확신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 예수님 몇 년 믿었어요?" "집사만 20년입니다." 그전에 믿은 것은 말 안하고 집사만 20년입니다. "그런데 그래 확신이 없어요?" "내가 시골서 농사짓고 있는데 도저히 확신이 없어 가지고 빨리 내 아들 집에 왔습니다. 나를 좀 인도해서 목사님을 한 번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 목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날 좀 천국 가도록 길을 인도해 주이소." 하는데 야, 정말 땅파는 소리입니데이. 확신이 없다 하는 사람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 저도 눈은 뜨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이 사람이 확신이 없답니다. 자신이 없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구가 하나 딱 가슴에 떠오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첫째날(4월 1일) 저녁집회 ●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다같이 받아합시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그런데 그곳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되는 기라예.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씻어야 돼요.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없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베드로의 발을 씻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약 열 시간 이내에 우리 죄를 위하여 양 손과 양 발에 못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를 오히려로 받아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가 머리로 짓는 죄를 위하여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대신 피흘려 죽으실 그 피를 상징하는 물을 대야에 떠와서 "씻으라.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없이 없느니라. 온 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어도 깨끗하다" 하십니다. 다같이 받아합시다. "온 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어도 깨끗하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두 번 씻어야 돼요. 이 성경대로 말하면 온 몸을 씻은 사람은, 온 몸 씻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단 한 번만 씻는 것입니다. 그것은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하셔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우리 한국의 어느 교파에서는 중생하면 죄짓지 않는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는데 노(no)! 그렇지 않습니다. 중생하고 나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발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을 때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들은 얘기자마는 물이 무엇이뇨? 세례를 가르치느냐, 무엇을 가르치느냐? 해석이 많습디다. 세례요한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받아하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각각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나는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나는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거니와", 물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케 하는 세례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은 크게 회개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눈물로 통회하는 시간이 한 번 있어야 됩니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밤마다 울어서 내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내 침요를 눈물로 적셨나이다"라고 했는데 밤마다 울어서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침요를 눈물로 적시는, 뼈에 사무친 저 깊은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심심한 회개를 가르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다. 복음만 믿어서 안됩니다. 회개하는 철저한 경험이 있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또 얘기 하나 더 합시다.

저는 열한 살 때에 목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후에, 해방되고 나서 이듬해인 1946년 9월달에 대구 시내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때 가서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부흥회,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무서워요. 너무나 무서워요. 그 추운 겨울에 가서 부흥회에 참석해가지고 집에 갈 마음이 없어서 밤새도록 철야를 하고 그러는데 이튿날 새벽에 목사의 설교에 불이 떨어졌어요. 제가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누가 일어나라고 말도 안했는데 일어나가지고는 "목사님,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 열일곱 살이에

들 용돈 너무 적게 주어 버릇하니까 죄짓습니다. 너무 많이 줘도 안되겠지마는요. 그 뿐만 아니라 또 밤중에 일어나 어머니 방에 들어가 가지고는 -우리 어머니는 맨날 돈을 차고 주무시더라- 큰 돈은 못 가지고 나오고 작은 돈을 항상 훔쳐내는데 왜 어머니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현장범이 못해서 못잡는 거라예.

그래서 어머니는 귀에 못대가리가 되어 앉도록 기도하십니다. 우리 가정은 저의 할아버지 대부터 믿어 가지고 다 믿는 가정입니다. 내가 믿었어예. 주일학교 나왔어예. 성경 읽었어예. 그런데도 도적질을 합니다. 어머니 기도가 "아부지여, 아부지여, 바늘도적 소도적 된다 합디데이. 아부지여, 아부지여....."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시는데 나는 하나도 가슴에 찔리는 것도 없고 '아부지여, 아부지여, 바늘도적 된다 합디다.'

그와 같은 비정한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을 시간이 다가오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제자들이 물을 때에 예수님이 그때 성삼문 모양으로 '내 가는 길 잘 몰라. 내가 더 기도 많이 하고 연구하고 깨닫거든 - 깨닫기는 지금 죽는 순간이 곧 다가오는데 어쨌건 그렇더라도 깨닫거든 -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다면 기독교는 벌써 없어졌습디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사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성삼문같이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너무나 똑똑하게 죽음 저 건너 편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요. 벌떡 일어나서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죄를 전부 다 고백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자 그 회개에 이어 그 교회의 수석 장로님인 송장로님이라고 있었는데 의사로서 지은 죄, 신사참배한 죄, 얼마나 눈물로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지. 그러자 여기저기서 회개하고 자복하니 목사님이 설교를 못했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눈물이 흐르고 통회의 역사가 벌어지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기도를 하고 밖에 나오니 세상에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바로 천당이라고요, 천당.

그런데 집에 와서 어머니를 뵈오니 까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뭐라 말을 못 하였습니다. 웬가 하면 우리 집에 남자만 4형제인데 어머니가 심부름을 전부 저한테 시켜 가지고 장도 저보고 봐오라 하고 그러면 맨날 돈을 떼어먹습니다. 10000원어치 사오라 하면 8000원어치 사오고 2000원 떼먹고. 여러분, 아이

그러면 '내 소도적은 안됐지.' 속으로 그러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도적질을 했어예.

그런 제가 "어무이여, 그 돈 내가 다 몰래 빼냈습니다. 용서하셔요. 그리고 장 봐가지고 오라카면 전부 다 싹되 모자라고 그랬지예? 그 돈 모두 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어무이 용서하시소." 이러는데 그 순간에 '핑' 나는 방구들이 내려앉는 줄 알았어. 어머니가 가슴을 팡 치면서 "그러면 나는 우예하란 말이고" 하고 통곡을 하십니다. 아마 어무이도 아버지 돈을 많이 훔쳤는 모양이라. 그러가지고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우리 어머니가 다혈질이 돼가지고. 통곡, 통곡, 통곡을 하며 어머니하고 나하고 목을 어긋맞겨 안고 얼마나 울고 우는데 동생 둘이 학교 간다고 가방 들고 가다가 보고는 저것들도 무엇이 걸렸는 모양인지 주저앉아 읊니다. 동생 하나는 "어무이여, 등록금 내가 훔치고 도적질했는데 잃어버렸다 했는 것

용서하셔요." 등록금을 도둑질했어. 그래서 그날 아침에 온 식구들이 중생의 씻음을 받았어.

씻어. 씻어야 됩니다. 씻지 아니하면 거기 못 들어가요. 다같이 받아합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늘나라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도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도다" 또 "여호와와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리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입술로 거짓맹세하지 않는 자"가 간다는데 누가 그 하나님 나라에 성결된 몸과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도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도 도적질하고, 믿어도 어머니 돈 훔치고, 믿어도 등록금 훔치고, 그거 안돼요. 씻어야 돼요.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없이 없느니라! 한 번 더 합시다. "온 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어도 깨끗하다" 이번 성회에 확실히 씻어야 됩니다. 확실히 씻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다니지 말아요.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예요. 교회 안에 도적놈들이 있어요.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없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말씀하시는 상대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불고가사(不顧家事), 불고처자(不顧妻子), 불고생명(不顧生命) 다 버리고 예수 따라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발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없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발씻는 게 무엇인가? 발씻는 것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 중생하면 큰 죄 안짓습니다. 간혹 가다가 다윗같이 큰 죄 짓는 사람 있지만 큰 죄는 안짓고 마음으로 죄를 지어. "옛사람은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살인 안하지요. 그러나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며, 형제를 보고 미쳤다는 것도 살인이며, 형제를 보고 미련하다고 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짓는 동기살인을 합니다. "옛사람은 말하기를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인을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하였으리라" 이렇게 우리 심령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또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들도 강단에서 강단 아래서 죄지어요. 우리도 죄 지어. 죄를 두려워해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일입니다. 저는 본래 본 교회에서 설교가 좀 길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이왕이면 올라갔는 김에 할 말 다하고 내려와야 되지 않겠어요? 설교를 그리 짧막하

●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첫째날(4월 1일) 저녁집회 ●

게 하고 내려오면 저들은 가 가지고 뭐 하려고요. 텔레비 불라고요?

아무튼 제 설교가 길다고 그랬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 지금 있는 우리교회 아닙니다. 그 섬기던 교회에 학자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백발이 성성한 한학에도 능하고 신문학도 능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 분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늘 그러는 것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이나 와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많았습니다." 그렇게 유식한 장로님이 그래 하니깐 얼마나 기쁘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런데 좀 길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예, 앞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조심하지요.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으니 또 오는데 슬며니 '오늘은 뭐라 할려고' 싶어집니다. 와 가지고는 또 손을 꼭 잡고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 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 그 꼬부랑 말 뭐라고 그래 많이 해 썼습니까?" 영어 많이 했다 이 집니다. "아이고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영어 안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예요. 목사 죽 이러 하면 그 목사 설교를 평하면 목사는 탁 죽어버립니다. 목사 죽어요 죽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길다, 짧다 이러면 우에 되겠습니까? 그 래 악수를 하고, 설교에 은혜가 있다고 그래 놓고 나서는 설교를 기가 차게 평 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장로님 과 다툼 적은 없어요. 다툼 일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절대로 제가 마음 속에 그 장로님 미워하는 생각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강대상 오른쪽에 는 장로님이 앉고 왼쪽에는 찬양대가 앉는데 설교를 자꾸 길다 짧다 그래 하 니까 주눅이 들 것 아닙니까? 그날 설 교하려고 원고를 내놓고 나는 무심코 오른쪽에 앉아있는 장로님을 봤는기라 예. 그런데 그 순간 장로님 눈하고 내 눈하고 딱 마주친 기라예. 당신은 무슨 뜻으로 봤는지 모르지마는 내 눈하고 당신 눈하고 딱 부딪치는 순간에, 그게 얼마나 순간적입니까? 그 순간에 순간 적으로 제게 드는 마음이 '저 늙은 거. 일찍이 안되지고 길다, 짧다, 그래 썼 는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라예. 아주 순 간적인 일이었지만 여러분 보세요. 강 단에서 장로를 죽으라카면 우에 됩니 까? 암만 그 장로가 밍드라도, 그런데 저는 절대로 미운 생각이 없었어예. 그 령지마는 세상에, 장로를 뒤지라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제 자랑은 아는데 저는 설교를 하면 원고는 다 만들어놓고 외워 가지 고 복성설교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 래 설교하는데 그날 땀흘릴 게절도 아 닌데 그야말로 비지땀을 흘리며 설교를 10분도 못했어예. 설교를 못하고 그냥 내려와서 성도들 배웅도 안하고 방에 가서는 큰 대자로 드러누워 버렸는 기라. "아부지여, 내 목사 안할랍니다. 내 목사 못합니다." 미친 사람모양

고함을 막 질렀는 기라. "아부지여, 내 목사 못합니다. 아부지여, 내 목사 안할 랍니다. 뭐할라고 목사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마음고생, 정신고생 시킵니까? 세상에, 그것도 강단 밑에서도 아니고 강단에 서가지고 장로를 뒤지라카면 우 에 한단 말입니까?" 고래고래 소릴 지 르니까 우리 집사람이 놀래 가지고 쫓 아 들어와서는 "당신 왜케요? 왜 그래 요? 말을 해보이소." 그래서 "나는 목사 안할랍니다." 그랬더니 "그래 목사 안하 면 뭐할라케요?" "할 거 쟤비있지."

참 고생했습니다. 한 일 년 고생했 어요. 그래 목사를 안한다고 결정은 딱 했는데 일 년이 갔는 거예요. 일년 간 이유가 있어요. '내가 목사 안하는 거 는 금방 안하면 되겠는데, 이 문제 해결 안하면 목사 안해도 밤낮 괴로워서 못 살 것인데 어떻게 한단 말인가. 목사를

서를 받도록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젊은 장로하고 나하고 둘이 엮드려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마음의 편안함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목사 안한 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했으니 세상에 이래가 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참 부끄러워요.

그렇게 죄를 지어요. 그 짓는 죄, 죄 를 놔두지 말고 씻어라. '마음으로 지 었는 거 뭐라고 그걸 다 취급하나? 여 러분, 그게 안 그렇습니다. 지극히 적은 것도 씻어야 합니다. 받아합시다. "온 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어도 깨끗하 도다" "중생의 씻음과"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 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죄 송합니다. 성결교의 모양으로 성결은 안되어도 성화는 되어야 돼요. 점점 더 거룩해져야 돼요. 그런 성도가 하나님

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할 때에 너 회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였습니 다. 믿 어지기를 원합니다. 믿 어지기를 원합니 다.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하였습니 다. 주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께로 올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 다. 이 영 광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 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 으라,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 나 온 몸을 씻는 믿음, 발을 씻는 믿음 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이 여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 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 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이여 하나님이여 우에 나를 버리시나이 까?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하시 던 주님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주여 용 서하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주여 은혜를 내리워 주소서. 주소서. 주 소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세 요. 어디 아픈데 있는 데도 손을 얹으시 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 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저녁에 이 자리 에 와서 주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들과 더불어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말 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 다.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이 자 리에 오셔서 주님이 대야에 물을 떠오 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듯이 우리의 발 을 씻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몸을 씻 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 멘,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 피묻은 성수로 우리 가슴 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 피가 마 음 속에 큰 증거 된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예수의 피가 뜨겁하게 흘러 나리 기를 원합니다 아멘. 원합니다 아멘. 원 합니다 아멘. 그 피가 마음 속에 큰 증 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 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은혜 많이 받았 는데 왜 그런지 기도가 잘 안되고, 왜 그런지 은혜가 매달렸고, 아버지 하나 님이여 왜 그런지 은혜가 사라진 감이 있는 성도, 발이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발이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무엇이 더 러워졌습니까? 무엇이 불결해졌습니 까? 이날 밤에 씻게 하옵소서. 움츠리지 말게 하옵소서.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더러운 발을 내놓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아 멘. 원합니다 아멘. 축복해 주시기를 원 합니다.

병들어서 아픈 자리 아버지 손을 얹 은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을 담 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주님 이여, 앓은병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던 능 력으로, 그 능력과 권능으로 새롭게 하 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사옵고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 다.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늘나라에 들 어갈 담력을 얻었도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런 말씀 이 있지요. 그러나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됩 니다.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도 도적질 하고, 믿어도 어머니 돈 훔치고, 믿어도 등록금 훔치고, 그거 안돼요. 씻어야 돼요.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한 번 더 합시다. "온 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어도 깨끗하도다" 그냥 다니지 말아요.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예요. 교회 안에 도적놈들이 있어요.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십니 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말씀하시는 상대가 보통 사람 이 아니고 불고가사(不顧家事), 불고처자(不顧妻子), 불 고생명(不顧生命) 다 버리고 예수 따라온 사람입니다. 그 런 사람도 발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고 하십니다.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회개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일년이 걸렸 습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약 30년 전인 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나이 젊고 경험 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어쨌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가지고 어느날 일어나 가지고 새벽기도를 했는듯 만등 하고 장로집을 찾았어요.

"장로님" 그 장로님 아들도 장로님 입니다. 젊은 장로님이 나오셨어요. "장 로님, 어른 한 번 뵙시다." "아버지 편찮아 가지고 누워있어요. 내게 말씀 하세요." "그래요. 그럼 그럴까요." 제가 그 얘기를 다했습니다. "내가 장 로님 아버지를 뒤지라고 했습니다." 그 랐더니 그 장로가 놀래 가지고, "뭐라 했어요?" 되묻는 겁니다. 하도 설교를 평해 썼고 길다 짧다 하는 바람에 내가 뒤지라 했다고 얘기를 다 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일 년 동안 가슴이 아파서, 가슴이 아파서 내가 죽었습니다. 제발 날 위해서 대신 기도 한 번 해주시고 용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그런 성도 에게 귀한 직책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 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번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 십시다. 설교를 듣고만 지나가지 마십시다. 교회에 나와서는 신자가 되고, 바깥에 나가서는 불신자가 되고 그러지 마십시다.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씻는 신앙, 씻음을 받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릅니다.(통성 기도)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말씀할 수 있는 이밤을 주심을 감사합 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밤에 주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좇아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

* 장애인주일을 앞두고 *

장애인선교와 복지의 전초기지 충현교회

이준우

(강도사, 에바다부 지도)



장 애는 그것을 입은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아픔이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개인의 아픔은 곧 사회의 아픔이다. 정상인(비장애인)이란 다행히 장애를 입지 않았을 뿐 언제라도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속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난에 대비해서 보듬에 들듯이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모아 정상인(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가 사랑으로 더불어 살아가도록 사회 인식의 저변 확대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한국인의 의식구조는 동질적이고 평준된 보편성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러한 기준에서 이탈한 이질적 개성일수록 비가치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국민 의식 속에 깊숙이 뿌려내리고 있는 이러한 가치관이 이질적인 개성을 지니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이들을 비가치화하고 멸시와 편견의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허다하다. 그 결과로 한국의 많은 장애인들은 충분히 교육받아야 하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격리된 시설에 단순히 수용되거나 버려지기 일쑤였고, 특수교육의 혜택마저도 박탈당해 왔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 할 교회마저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무관심에 젖어서 장애인선교와 복지를 외면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를 아주 요원한 일이 되고 만다. 아직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한국 교회의 선교와 복지는 단순한 구제의 차원에 머물러 있고,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차별없이 전해 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다.

현대사회의 복지는 인간다운 생활이다.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도 단순한 구빈적 수용이 아닌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장애인을 위한 복지의 최대 목표는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평등한 인간으로 자리매김하여 이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참여하는 사회적 통합이다. 장애인(비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통합시키는 노력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장애인의 부모와 가족을 상담하고 돌보는 것도 사회 통합을 위해서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불식과 제도적인 정비에 위한 노력도 사회 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의의가 있는 것이다. 기독교 복음은 바로 이러한 장애인의 복지를 이루는 데 가장 결정적인 초석이 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장애인을 영적, 육적으로 치유하셨고, 그들의 앞길을 복되게 해주셨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장애인 사역을 반드시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우리 충현 교회에는 장애인들의 선교와 복지를 위

한 기관과 부서가 이미 세워져 발전되어 가고 있다.

정신지체인을 위한 충현복지관

우선,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충현복지관은 정신지체인을 위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정신지체 장애아동들과 자폐아동들, 성인 정신지체인들이 교육받고 있다. 바로 복지관 내에 있는 장애아동 조 기교실과 직업훈련실이다. 부모님들에게 슬픔과 한숨의 대상이었던 아이들이 헌신적인 특수교사들의 따듯한 노력과 부모님들의 관심으로 희망과 가능성의 존재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장애아동에게는 많은 희망과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과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악보다도 큰 죄악이다. 장애아동이 마음껏 교육받고 어디서나 신나게 놀며 어떠한 학교에서나 공부하고 누구에게나 이웃이 될 수 있을 때에 그 사회야말로 멋있고 살맛 나는 사랑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성인 정신지체인들을 위해서는 직업 재활 훈련과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성인 정신지체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믿으며, 스스로 재발명을 해서 이 사회의 멋진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충현복지관에서 하는 성인 정신지체인을 위한 훈련과 프로그램은 변화를 만드는 사역이며, 복지관은 사랑으로 기적을 제조하는 공장이고, 여기서 일하는 사회사업가는 기쁨과 사랑, 소망을 전해주는 평화의 기술자이다.

기독교 장애인 복지사업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자 존재 근거는 '인간의 변화'일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장애인이 마르고 건강하게 변화하도록 노력하는 일이 기독교 장애인 복지사업의 가장 귀한 과업이 아닐까? 하지만 인간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도 겸비되어야 한다.

충현복지관의 여러 선생님들은 모두가 철저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얼마전 시작한 그룹홈(장애인공동생활가정)과 농축산 보호작업 및 자립작업장 운영을 비전으로 삼고 우선 준비단계로 시작한 '농사 훈련' 프로그램 등 정신지체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다.

정신지체아를 돕는 사랑부

교회학교 부서인 사랑부는 정신지체인들의 신앙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다. 오늘 우리 땅에서 '자기 극복의 논리'를 이해하거나 현실화하기에 가장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바로 정신지체인일 것이다. 누가 이들의 아픔을 잠시라도 보상할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사랑의 손길을 부르짖지만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통로가 구원의 빛줄기가 아니었던가!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고백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남은 생을 살게 해야 할 것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어둠에서 빛을, 아픔에서 기쁨을, 고난의 삶에서 영광된 부활의 삶을 함께 나누도록 해야 한다. 정신지체장애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엄한 인간이다. 그러므로 정신지체장애인의 복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간됨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참된 정신지체장애인의 복지는 무

엇인가?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정신지체라는 이유로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이 그들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복음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며 이 사회에서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하면서 적장생활하는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다.

소외되고 어려움 당하는 그들에게 복음은 참되고 유일한 소망이 된다. 육체적인 장애로 인해 파생되는 기능적인 장애와 사회적 편견은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정신적인 불안감과 소외감의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게 한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좌절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 그런 면에서 사랑부는 자폐와 정신지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희망과 빛으로 이끌어갈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 사랑부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다. 심한 자폐증으로 인해 가정의 슬픔이 되고, 신앙적으로도 포기될 수밖에 없던 장애아동이 비록 어눌한 몸짓과 표현에다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것, 그것에 엄청난 역사가 여는가? 한 장애아동의 놀라운 변화는 그들의 부모에게도 큰 기쁨을 준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에바다부

청각장애인(농아인)들을 위한 에바다부가 있다. 농아인이라 간단히 말하면 의사소통의 장애인이다. 그러므로 에바다부에서는 농아인의 의사소통의 해결

이라는 관점에서 교회의 전폭적인 후원 아래 여러 가지 일을 해오고 있다. 농아인들만의 예배나 집회시에는 수화가 주된 의사소통법으로 채택되고 있으나,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OHP와 VTR, 그리고 시청각 기재를 반드시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당에서 드리는 모든 공예배시에는 수화통역만이 아니라, 수화통역하는 TV화면 밑에는 자막으로 똑같은 예배 내용이 나오고 있다. 전문 자원봉사자가 컴퓨터로 음성으로 말해지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문서화해 주고 있다. 그래서 수화를 모른다 할지라도 글만 알면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찬송, 기도 등 모든 예배와 집회에 소외됨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중도에 갑자기 귀가 들리지 않아서 농아인이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신앙생활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도움이 된다.

하나님의 일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단 한 명의 농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면 모든 교육기재와 설비, 환경은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좋다. 우선 농아인 성도들과 학생들이 예배 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 신앙교육의 효과도 훨씬 좋아졌다. 자연히 성도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 그리고 수화교육의 활성화는 수화를 구사할 줄 아는 많은 전직인 교사들과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을 나오게 하였다. 이들로 인하여 농아인들과 전직인들이 마음의 벽을 헐고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함으로 체계적인 신앙 지도와 훈련이 가능하게 되었고, 나아가 농아인 신학생들도 많이 배출될 수 있게 하였다. 현재 농아학생 50여명과 성인 농아인 50여명 총 100여명이 충현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이 들중 신학교 재학생이 6명이며 신학대학원생이 1명, 모두 합하여 7명이나 된다. 더욱이 에바다부 교사 40여명 중에 12명이 농아인 교사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이다. 에바다부는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집회가 열린다. 숫자는 100여명에 불과하지만 어린 유치부 아동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 연령은 다양하다. 주일 아침 8시 30분부터 학생반 예배, 3부예배(수화통역), 성인반 집회, 수화교실과 소그룹 모임, 주일 저녁 찬양예배가 하루종일 계속 진행된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선교가 무엇인가? 짧은 목회경험이지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대로 밝혀보면, 장애인 선교는 '만사대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장애인 선교는 만나고 사귀고 대화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충현교회 사랑부, 에바다부, 나아가 충현복지관은 바로 이 장애인선교와 복지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애써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길 큰 기회는 많지 않으나 적은 기회들은 우리 생활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지금이라도 에바다부나 사랑부, 그리고 충현복지관의 문을 두드려 봉사할 일을 찾는 그 마음 하나가 바로 그 작은 섬김의 한 방법이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생명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신다는 것도 꼭 말씀드린다. 더욱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과 4월 21일 장애인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충현의 성도님들이 보다 더 장애인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는 결심들이 있기를 바란다.

토막소식

▶ 청년1부는 오늘 구제 사역의 일환으로 르완다 난민의 생활상을 담은 영화를 관람하는 시간을 갖는다.

▶ 새가족부는 오늘 성경퀴즈대회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새가족부는 미리 교재를 배포하여 새신자들에게 말씀 공부의 기회를 열어 주었다.

▶ 주부교양강좌 준비 기도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 갈릴리홀에서 있다. 각 지회 남녀전도회 회장, 부회장은 모두 참석해야 한다.

▶ 인도네시아 서만수 선교사가 오는 16일(화) 입국한다.

제10교구 일꾼훈련 실시

제10교구(교구장 엄필성 장로, 지도 정광욱 목사)는 지난 11일 충현기도원에서 교구일꾼 훈련을 실시했다. "우리도 이번에 한 세대"라는 표어 아래, 예배와 이두란 공로전도사의 특강, 주제 토의, 기도회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 훈련을 통해 10교구 일꾼들은 교구의 부흥 발전을 위한 '1·1·1 전도 운동'(1분기, 1구역, 1세대 전도)이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팀전도를 전개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교구 일꾼 간의 사랑과 섬김과 교제의 시간을 나누었다.

충현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우리들 주위에는 우리와 함께 나누길 원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작은 관심이 커다란 사랑으로 전해집니다.

충현복지관에서는 정신지체인들을 위한 작업훈련과 정신지체 아동들을 위한 조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1회 3시간 정도의 시간을 함께 나누실 수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다립니다.

문의: 충현복지관 재활사업부
☎ 564-4885, 562-0548

현역 복무 중인 군인 주소 파악

군전도회에서,
군전도회 회원 중 주소 변경자도

군전도회(회장 김재명 장로)에서는 국군 장병 복음화의 일환으로 군입대자의 신앙생활 지원, 군부대 위문, 진중 세례식, 군목 지원, 군교회 건축 등 다양한 선교 활동으로 천여명 회원을 확보, 활발한 선교 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군전도회에서는 충현교회 등록교인 중 현역으로 군복무 중인 군인들의 신앙생활을 지원, 협력하기 위하여 현역 복무 중인 군인들의

주소를 파악하고 있는데, 본인이나 가족들이 주소를 바르게 알려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전도회원의 올바른 주소 작성과 유인물 배달을 위해 군전도회원의 주소 파악을 하고 있다. 특히 주소가 변경된 사람은 반드시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 연락은 군전도회 사무실(본당 108호, 연속기도실 맞은편)로 하면 된다.

농아인 가정에 봉사원이 필요합니다

아이 둘(6세, 8세)을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돌봐줄 봉사자 5, 6명이 필요합니다. 부모 모두 농아인인데 어머니가 가출하신 상태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면 됩니다. 위치는 수서 임대아파트입니다. 관심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에바다부 이준우 강도사(☎ 552-8200 교한 352)에게로 하면 됩니다.

실업인전도회 경찰청 부활절 예배 지원

실업인전도회(회장 임무천 장로)는 지난 3일 경찰청사 14층에 위치한 경찰청교회에서 경찰청 직원들과 함께 부활절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전도위원장 강은원 장로의 기도, 임무천 장로의 성경 봉독, '믿는 자의 부활'(고전 5:35-44)이란 주제의 김희수 목사의 설교, 김성자 집사의 특송으로 진행되었다.

예배를 드린 후 전도회원들은 경찰청 직원들과 함께 부활절 계란을 나누며 은혜로운 만남의 시간도 가졌다.

우리교회는 김창인 원로목사가 초대

경목회장을 역임했고, 결연을 맺는 등 경찰청과는 인연이 깊다.



나라의 상징인 무궁화 동산을 만들자

장 호 응

(제2교구, 타교회 원로장로)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민국, 이 강산에 무궁화는 별로 없고 사쿠라(일본 국화)가 화려하다. 전해 군항제에 가보면 벚꽃으로 꽃대궐을 이루고 각종 행사가 펼쳐진다. 이것은 벚꽃 축제이기도 하다. 창경원 벚꽃놀이도 언제인지.

벚꽃은 우리 나라가 원산지 이기는 하나 일본 국화이다. 대화혼(大和魂), 일본혼(日本魂)과 정기를 담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창경원, 진해, 관공서, 학교는 물론 전국 방방곡곡 어디에나 사쿠라꽃을 심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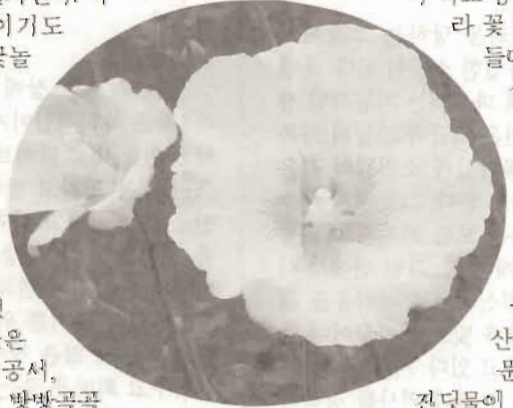
무궁화 삼천리 우리 조상들은 이 꽃을 사랑했다. 이 꽃은 수줍고 결백하고 우아하고 향취 높고 번식력이 강함으로 나라의 번영과 자손들의 창성을 뜻한다. 특히 흰 꽃은 백단심(白丹心)을 나타내는 것으로 귀하다. 무궁화발자손지(無窮花發子孫枝)

이제 총독부 건물도 헐어내고 국민 학교도 초등학교로 고쳤다. 지명이나 아무것에서라도 재색을 불식하는 에 마당에 그들의 정취가 가장 깊숙이 깃든 사쿠라꽃(애절대 심은 것)은 커대고 우리나라 꽃 무궁화를 심어야 한다. 그래야만 민족 정기와 자존심이 살아난다.

기차의 호칭을 보면 무궁화호보다 새마을호가 더 높다. 국화에 대한 수모가 아닌가. 청와대는 안가봤으니 모르나 사진으로 봐서는 무궁화는 없다. 관공서나 학교 등 어디서나 우리나라 꽃 무궁화는 보기 힘들다. 이제 무궁화를 심어야 한다. 관공서는 물론 집집마다 거리마다 방방곡곡 무궁화를 심고 가꾸어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애국가) 무궁화 동산을 만들어야 한다.

문제점은 무궁화에 진땀물이 많이 붙는다는 것이다. 시골 있을 때 우리 집은 과수원과 곁들여 있어 무궁화를 잘 가꾸었으나 다른 사람은 심었지만 진땀물로 다 망가졌다. 이를 방제하려면 4월과 새마을운동 무슨 구락부를 만들어 공동 방제를 해야지 지금으로는 어렵다. 무궁화를 안심는 것이 아니라 가꾸지 못해서 이 꼴이 된 것이다. 특단의 강구가 필요하다. 국기, 국가, 국화는 나라의 상징이요 경취이다. 이것으로 애국심을 발휘하고 고취해야 한다.

4월은 나무 심는 달이다. 많은 나무, 꽃을 심으나 무궁화 심는다는 말은 못들여 씁쓸하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무궁화 동산을 만들자.



부흥사경회에 참석하고 나서

뜨거운 성령의 손길이

한 성 회

(초등4부 교사)

그 때도 따뜻한 봄날이었다. 심계명의 제4계명을 범하면서 두 부모님을 모시고 오남매의 대표로 멀고먼 외가댁에 다녀왔다. "네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는 구절이 머리를 맴돌았지만 하나님도 내 이런 마음을 인정하실 줄 알았다.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나도 죄스러운 마음이었다.

집을 떠나던 언제나 심한 변비로 고생을 해야만 했다. 까탈스러운 성격이랄까? 모난 마음이랄까? 아무튼 변비로 인해 보름쯤을 헤매고 있었다. 서울에 도착 후에도 출혈과 변비는 그칠 줄 몰랐고 그로 인해 치루라는 병이 오게 되었다. 무척이나 겁도 많고 눈물도 많은 나는 두려움에 온 몸을 떨고 있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언제나 그랬듯이 출근과 등교를 시키고 나면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위로했다. 그 순간에는 감사하는 마음보다 발버둥치며 "주님 앞에 살려는데 이런 고통이 오다니" 하며 원망이 있었던 것 같았다. 사탄도 한 몫 했다. 병에 대한 세력도 무서움으로 덮어 줬으며, 머리 속에 아예 외워서 나를 괴롭게 했다. 책으로 광고로 소문으로 사탄은 나를 유혹했다.

그러나 나는 주저앉을 수가 없었다. 기도원으로 새벽기도로 금식으로 나를 일으켰다. 눈물과 콧물로 뒤범벅이 되어 늘 돌아오곤 했다. 그러나 그럴 듯한 해답은 없었다. 나의 마음 속에 확실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울며 부르짖던 기도, 금식하며 소리치며 회개하던 기도, 마음 깊숙이 주님께 드리는 소원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내용이었다. 기다렸다.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아직 더 눈물의 기도를 원하시는가 보다. 언제나 마음 저 깊숙한 데는 풀지 못한 숙제를 남겨 두고 지내야만 했다. 환상과 계시와 안수와 이런 것들을 애다 하지는 않았다. 또한 간증하는 성도들의 소리를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며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제까지도 믿음이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숙되어진다고만 알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때를 알고 싶었다. 마침내 고난주간이 되었고 근 일년이라는 세월을 그 병으로 인해 기도하게 되었고 낮아지게 되었다. 올해는 고난주간 동안 부흥사경회도 있어서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새벽기도때였다. 언제나 울면서 기도를 해서 남에게 피해를 줄까봐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날도 울고 있을 때 누구였을까? 누구였던 팔인가? 나의 왼쪽 옆구리에 사람의 손이 닿았다. 분명히 왼쪽 손이었다. 감싸안은 듯 편안한 손길을 느끼자 얼마나 뜨겁던지 "앗 뜨거워" 할 만큼의 불길에 어찌 할 바를 몰랐다. 기도가 바뀌어졌다. 감사였다. 감사, 그것은 치유의 감사였다. 해방이었으며, 그것은 해결이었다. 할 말이 없었다. 두 입술을 물었다.

"주님! 오, 주님! 연약하여 또 다시 넘어질지라도 그 손길로 일으켜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당신을 본 중인이 되겠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했다.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